

보도일시 (인터넷) 2024. 5. 23.(목) 11:00,
(지면) 2024. 5. 24.(금) 조간

배포 2024. 5. 23.(목) 06:00

공공 선주사업 추진 방향,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 5. 24.(금) 공공 선주사업 민관 협의체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공공 선주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5월 24일(금) ‘공공 선주사업 민관협의체’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선사의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선대 확보에 기여하고자 해진공이 선주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공공 선주사업**’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높은 신용도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선박을 확보하고 선사에 임대하는 회사

** 해진공이 선주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선박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용선료로 선사에 임대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자동차운반선(PCTC*) 확보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자동차 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 운반선 4척을 공급할 예정이다.

* PCTC: Pure Car and Truck Carrier

** CEU: 소형 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Car Equivalent Unit)

이어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운송 수요가 많은 특수선 등 선종 다변화, 탈탄소 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선 확보 등 국내 해운·물류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공공 선주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해운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지현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0-5715)
담당 부서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금융1부 프로젝트금융2팀	책임자	부 장	문주혁 (051-795-1710)
		담당자	팀 장	이승호 (051-795-1721)

◆ 공공 선주사업이란?

- 선주사란 높은 신용도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선사가 필요로 하는 선박을 확보하고 선사에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 경기 변동에 민감한 해운업의 특성 상 수요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반면, 공급은 선박 건조 기간 등으로 조절이 어려워 즉각적인 조절이 어려운데, 선주사는 선박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문 선주사가 발달한 그리스 등 주요 해운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문 선주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 공공 선주사업이란 선박을 확보하고 선사에 임대하는 이른바 ‘선주사’의 역할을 공공기관인 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는 선사의 선박 도입 초기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선대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 선주사업을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앞으로도 해운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출입 애로가 있는 선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우선 발굴하고, 해운분야 탈탄소 규범 강화를 고려하여 공공 선주사업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확보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 지난 4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은 무슨 내용인지?

-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에 발표했던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 대책에 더하여 3조 5천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는 친환경·ESG 등 글로벌 규범에 대응한 해운산업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저시황에 대비하여 경영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시황 위기에 대응한 경영 안전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량을 2030년까지 200만TEU(現120만)로 확충하는 한편, 국적선사를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전환, 사업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중소선사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를 5년 간 5,000억원으로 종전 대비 2배 확대하고, 국적선사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톤세제 연장, 공공선주사업 확대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두 번째로, 민간의 선박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에 선·화주가 공동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토큰증권 등 새로운 투자기법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친환경·ESG 등 국적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녹색채권 인수 등 ESG 금융을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5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지난 4월 개장한 부산신항 7부두는 완전 자동화 부두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 지난 4월 5일 개장한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 첫 완전 자동화 부두로서, 화물 이송 전 과정을 자동 또는 원격운전으로 조종하는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 그간 국내 컨테이너 부두는 선석 영역(선박~접안 구역)과 장치장 영역(화물을 장치하는 영역)까지만 원격장비를 도입하였으며,
- 이번에 개장한 7부두는 이송 영역(접안 구역~장치장)까지 무인이송 장비(AGV*)를 도입하면서 완전 자동화를 실현하였습니다.

* Automated Guided Vehicle : 바닥에 깔린 신호선에 의해 움직이는 무인이송장비

< 완전 자동화 부두 물류 흐름도 >



구 분	선석영역	이송영역	야드영역	항만자동화 수준
기존 타 부두	△ (원격.수동 크레인)	X (유인야드트랙터)	△ (원격크레인)	부분자동화
부산항 신항 7부두	○ (원격.무인 자동화)	○ (무인이송장비)	○ (무인자동화)	완전자동화

□ 완전자동화로 항만 내 인적 사고가 대폭 줄어들고, 감염병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혀 ‘24시간 멈춤없는 항만’을 구현하였습니다.

- 기존 대비 부두 생산성을 20% 향상시켜 국가 물류망을 효율화하고,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